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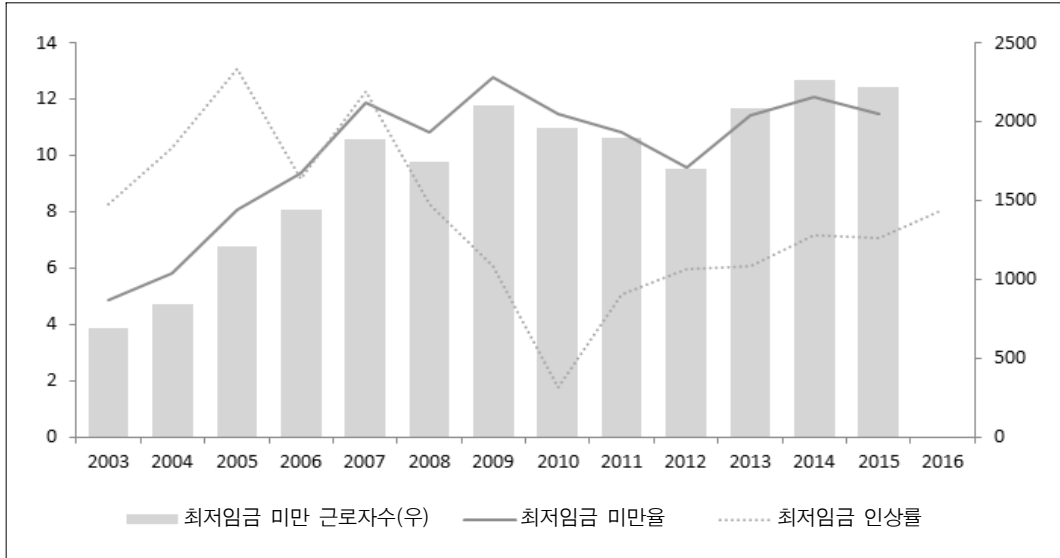
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실태 (2006~15년)

- 최저임금제도는 1989년 도입된 이래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2000년 10월 24일부터 모든 임금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됨. 최저임금은 외환위기(1998.9~1999.8, 2.7%)와 국제금융위기(2010년 2.8%) 때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, 최근 3년간 평균인상률은 7.6%로 높은 수준임.
 - 201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7.1%였으며,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인 5,580원 미만인 근로자는 222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1.5%에 달함(2016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8.1%, 6,030원).¹⁾
 -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만율(=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비중)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임. 스페인(2013년) 34.5%, 터키(2015년) 19.0%, 캐나다(2013년)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6.7% 등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나라인 반면, 미국(2015년) 2.2%, 일본(2013년) 1.9%, 영국(2014년 0.8%) 등 대부분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.
-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사업체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,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이며, 산업별로는 평균임금이 낮은 도매 및 소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남.
 - 5인 미만 영세사업체 근로자 10명 중 약 3명은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. 2006년 대비 2015년 증감을 보면, 5인 미만 사업체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347천 명 증가한 가운데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각각 103천 명, 138천 명 증가함.

1) 최저임금 미만율은 통계청, 『경제활동인구조사』와 고용노동부, 『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』에 따라 수치가 차이남. 『경제활동인구조사』의 시간당 임금총액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5년 11.5%인 반면, 『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』의 시간당 통상임금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6.2%로 나타남.

[그림 1]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, 최저임금 미만율,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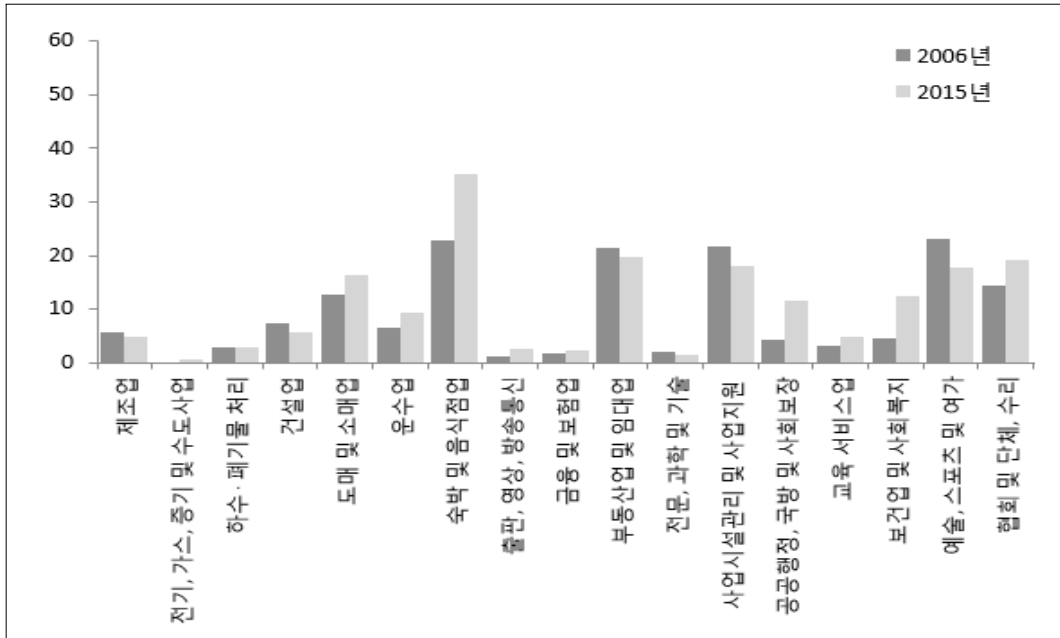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%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(8월)」, 각 연도.
 최저임금위원회, 「최저임금 심의·의결 경위」, 각 연도.

[그림 2]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(2006년, 2015년)

(단위 : %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(8월)」, 각 연도.

- 평균임금이 낮은 도매 및 소매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과는 달리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공공부문에서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 이는 시간제 근로뿐만 아니라 한시적 근로, 특히 60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증가가 컸던 데 기인함.
-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연령별 변화를 보면, 노동시장 진입연령인 25세 미만 청년층과 노동시장 퇴장연령대인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증가함. 특히 25세 미만 청년층 중 재학생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았으며, 이들의 일자리는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일자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.

[그림 3] 연령별·사업체규모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(2006년, 2015년)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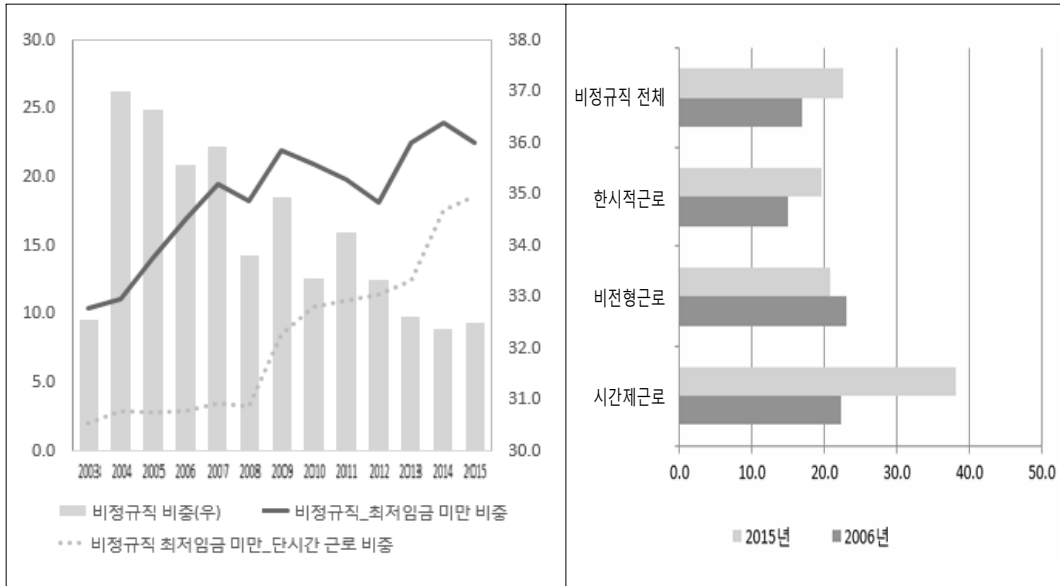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(8월)」, 각 연도.

- 비정규직 비중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은 증가세를 보임.
 -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2015년 22.5%로 전년대비 1.4%p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임.
 - 특히 비정규직 중 최근 10%가 넘는 가파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는 시간제 근로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8.2%로 한시적 근로(19.6%), 비전형근로(20.8%)에 비해 높은 수준임.
 - ※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초단시간 근로자(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) 비중 또한 2009년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.

-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,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‘근로취약계층의 보호’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대한 사회전반에 걸친 이해가 필요함. **KLI**

[그림 4] 정규·비정규직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(좌)과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(우)
(단위 : %)



자료 : 통계청, 『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(8월)』, 각 연도.

(김복순, 동향분석실 전문위원)